

< '26년 식약처 주요업무 >

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분석법 개발 확대
- 담배 유해성 정보의 국민 소통 및 검사기관 지정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및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대학교 담배연기분석센터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아울러,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1월에 개방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②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유해성분의 검사방법,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범위·방법 등을 심의·의결

또한, 공개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14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③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 지속적 개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권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담배와 권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들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책임자	과 장	이승철 (043-719-1791)
		담당자	연구관	이선미 (043-719-1792)
<협 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현경 (043-719-5301)
		담당자	연구관	박형준 (043-719-5311)

